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2014. 9+10



dail



CONTENTS

- 04 메말라가는 대지에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
- 08 밥의날에 외칩니다
- 11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 12 아프리카의 눈물이 아프리카의 희망이 되길 소망하며
- 14 100원의 자존심으로 아프리카에 희망을 선물하다!
- 17 밥퍼는 000이다
- 18 해외분원 소식
- 20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22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4 후원안내 및 분원연락처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하늘이 맑게 열리고 따가운 햇살아래 곡식들과 과일들이 영양과 맛을 들여 익어가는 은혜로운 가을날 아침에 후원회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8월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이어 우간다 다일 공동체 개원을 위한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홍보대사 박상원 형제님과 아프리카 다일공동체를 사랑하는 분들과 더불어 우간다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첫 삽을 뜨고 왔습니다.

1988년 청량리의 쓰러져가는 낡은 한옥 집에서 시작된 다일공동체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로 나아가는 국제적인 NGO가 된 쾌거는 오로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이 꾸준히 보내주시는 다일 사랑의 결과이기에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밥퍼를 통해 굶주린 이웃을 돌보는 토종 NGO 다일과 함께 후원회원 여러분의 사랑도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함께 기뻐하며 계속 계속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류의 바람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지금 이제는 토종 N.G.O(비정부기구) 다일공동체를 통해 모두 나눔한류를 이루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 이제까지 후원하신 분이 한 사람의 후원회원을 꼭 연결해 주셔서,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양육하는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분 후원회원이 한분의 새 후원회원을 연결하기!”

이것이 이 가을, 우리 인생에 영양과 맛이 깃들고 아름답게 익어가게 할 줄 확신합니다.

만 원짜리 한 장 없이 시작한 다일공동체를 오늘까지 키워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하는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도한, 최가람, Byeol Ellie Choi

영문번역 | 이예형, 주예나, 이승철

영문감수 | Byron Chun

사진 | 김도한

디자인, 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4년 9월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 2212 8004

팩스 | 02 2243 8005



이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아이들의 눈빛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 아이들의 간절함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다일공동체는 해외 빈곤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영양공급을 받고, 교육을 통해 꿈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일대일아동결연으로 아이들이 인재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대일결연문의
02. 2212. 8004

dail

메말라 가는 대지에 희망의 씨앗을 심기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세계는 놀랄만큼 부유해 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아직도 발전과 거리가 멉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0명 가운데 40명에 해당하는 23억명이 아직도 하루에 2달러가 채 안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국제 연합 (UN)은 3년에 한번씩 최저 개발국을 발표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900달러 미만인 나라들입니다. 2013년 12월 보고서 기준 총 33개국 중에 아프리카가 26개국이 최저개발국으로 지목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중 우간다도 속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밑돌게 됨에 따라 주로 Karamoja 지역의 약 10만 명이 심각한 식량불안상태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북반구는 토지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많은 갈등도 있지만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들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죽는 모습을 목격한 후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비옥하지 못한 토지와 식량문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 아프리카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심지

어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고픔으로 죽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임종에 이르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견뎌야 하는 고통 또한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아는 몸의 파괴는 물론 정신까지도 서서히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10세미만의 아동이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 가고 있으며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분에 1명꼴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000만명이 심각한 만성 영양 실조 상태에 있고 아프리카는 현재 전 인구의 36퍼센트가 굶주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놓여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10월 16일은 세계 식량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유엔 전문가의 하나인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식량생산의 중요성과 기아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매년 이 날을 1979년부터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먹을 것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아직도 한쪽에서 굶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21세기를 사는 우리 인류 전체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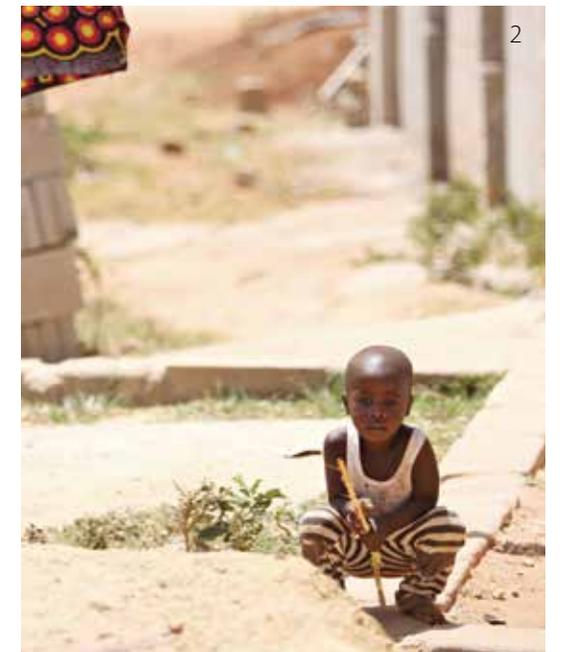
70억에 가까운 세계 인구 가운데 상층 10억은 먹을 게 너무 흔해서 그간 먹고 찢 살을 빼느라고 막대한 돈을 쓰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바닥 층에 있는 10억의 인구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도시 쓰레기장을 뒤지든가 벌레를 잡아먹든지 나무껍질을 삶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금을 구호단체 보내서 구호단체에서 식량을 구입한 후 이를 재해발생 지역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이들 단체들이 현장에서 직접 식량배급에 나섭니다. 이런 걸 인도주의자 들이라 합니다. 인도주의자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보내거나 병을 치료해 주며 집을 지어주고 예방 주사를 놓아 줍니다. 군사 분쟁, 기근,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인도주의자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위기를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는 국제 연합에 대표를 파견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맞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나은 삶으로 살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일공동체에서는 아프리카 땅에 비전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탄자니아와 우간다에 다일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탄자니아는 다레에스살렘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사는 동네 쿤투치 채석장에서 2014년도 1월 31일에 탄지니아밥퍼를 개원하였고, 올해 8월에는 우간다 다일공동체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완벽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작은기금으로 우간다, 탄자니아 어린이들과 사람들에게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대일 아동결연 매칭으로 아이들이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며 꿈을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인간적인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한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음식을 충분히 먹고 자유와 정의를 누리기 전에는 지상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읽는 순간이 기아에 대한 의식과 공동의 관심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간다 다일공동체와 탄자니아다일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사역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1

- 1. 씨클셀 병을 앓고 있는 아씨피웨 @탄자니아 쿤투치
- 2. 밥퍼센터 앞에서 배식을 기다리는 아이 @탄자니아 쿤투치



2

참고문헌 장지글러 “굶주리는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

To sow seeds of hope onto the dry land

For the recent years, the world has become amazingly rich, however some areas are still remain undeveloped. About 40% of world population lives with less than \$2.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world poorest continent, Africa.

Every three years, UN announces the most undeveloped country. Those are the countries of which GDP is less than \$900. On December 2013 report has become an issue when it pointed out that 26 African countries were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out of 33 countries. Uganda was one of those. (For the last two years crop production rate was below the annual average rate that about a hundred of thousand people in Karamoja are in serious food shortage). Dying for hunger is such a painful thing. It takes long time before you die and you will have painful experience before you die. Starving drive ei-

ther your body also your soul to the end.

The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reported that one less than 10 years old is dying every one second and that 1/3 of world population are losing their sight for lack of vitamin A. about 850 million people, 1/7 of world population is in serious undernourished states and 36% of whole population of Africa are facing starve to death.

The 16th day of October is design ate dasaWorldFoodDay . FAO, one of the UN entities,has been celebrating this day since 1979 to enhance the consciousness a boutfamineand to stress the import an ceoffood production. It is such a shame on us in this 21 century when there are still people who starve to death when we are living such abundant life. Among 7 billion world population, 1 billion who are at the top level are spending a lot of money to be

-
1. 조그만한 그늘 아래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이의 눈빛이 애처롭습니다. @탄자니아 쿤두치
 2. 일나간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노는 아이 @탄자니아 쿤두치



on a diet, on the other hand, 1 billion at the bottom level eats warms or wood peals when they have nothing to eat.

So the question comes to our mind is "how can we help them?"

Usually people send fund to charity organization so the org can purchase food and send it to the areas or the orgs themselves are distributing the food at the sites. We call them humanitarian.

Humanitarians send foods to those who are in need, treat medical care to them, built houses, and shot preventive injections. Humanitarians help people to overcome their difficulties when there are wars, famine, or natural disaster. Sometime they seconded their reps to UN and do certain activities to enhance human dignity. As we face the World Food Day on 16thday of October we need to think about the way how we could lead those who are in need to the better life. Dail community, in prayers for vi-

sion on Africa, has built a Uganda Dail Community. The Tanzania Dail has opened Tanzania Baffor on 31 January 2014 at Kunduchi quarry, the most poorest villages in Dares Salaam. We are not perfect. However, the small fund we got through campaign became a motive to sow the seeds of happiness to the children of Uganda and Tanzania. The children are studying at school by helps of supports done by one on one support matching. Now our goal is to go one step further to make the better world. There would be no real peace and freedom before all the people in the world enjoys eating and enjoys freedom and justice. Responsibilities to each other! Wouldn't that be our co-responsibility? We would like to have this moment to become a starting point to renew our consciousness about famine. We would be grateful when you pray for us in our mission about Uganda Dail Community and Tanzania Dail Community.

밥의 날에 외칩니다. Stop Hunger! Here & Now!

오늘날 우리는 밥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먹거리속에서 기아라는 단어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너무도 먼 남의 얘기처럼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다이어트 등으로 밥을 굶는 것이 선택이 된 우리에게 는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엔 하루 한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밥퍼나눔운동본부에 오시는 노숙인들과 세계 빈곤국 가의 아이들입니다.

밥퍼나눔운동본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르신 식사는 하셨습니까?”

어른신을 만나면 흔히 하는 인사이지만 밥퍼나눔운동본부 에서는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안 부와 지난밤 무탈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담겨 있습 니다. 끼니를 챙기는 날보다 거르는 날이 많다는 어르신들 을 만나다보니 식사 여부를 챙기는 것이 밥퍼나눔운동본 부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다일공동체의 해외분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빈민촌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첫 인사로 밥

먹었는지를 묻는 것은 일상입니다. 밥을 나누는 사역을 하 면서 자연스레 이들과 밥으로 소통하다 보니 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반가운 인사가 된 것이겠지요. 처음 밥을 나 눌 때만 하더라도 경계하며 밥만 급히 챙겨 나가던 모습들 에서 이제는 서로 눈을 맞추고 미소로 화답하는 것을 보 면서 이것이 ‘밥’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계 빈곤한 이웃을 생각하자는 취지로 UN에서 정한 날 이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밥’ 사역을 하는 다 일에겐 ‘밥의 날’인 셈입니다. 해서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는 이날을 “밥의 날”로 명명하여 다일의 사명선언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세계 빈곤층의 기아해결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가 없을 때 까지! Stop Hunger! Here & Now!”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 부터 실천합니다!”

다일공동체의 밥퍼나눔운동은 계속됩니다.

Stop Hunger! Here & Now!

These days we don't recognize the value of rice. Because we live in an affluent society, so we don't care about the HUNGER. Some people choose not to eat for their health, but other people is starved. There are some people around us cannot eat just one meal for a day. The homeless people and children from other poor countries come to Babfor.

In the Babfor, we exchange greetings with "Hi Have you eat?"

With these everyday greetings, we also worry about the people's safety and concern. This is our routine life in the Babfor because many people around us suffer the hunger. Also, the branch of Dail around whole world is as same as Korea. We ask the children whether to eat or not as a first greeting. At first time, people are cautious of us, and they just take a meal. Since we communicate with them through the meal, they are familiar with the greetings. We think that the meal or rice is a powerful tool for har-

mony of world. Oct 16 is World Food Day. The day is like Rice Day in Dail community. So, we think our proclamation again, and new begins taking this opportunity.

We cry out!

"Stop Hunger! Here & Now! Until stop starvation!"

"From Now, From Here, do small things that I can do, me fi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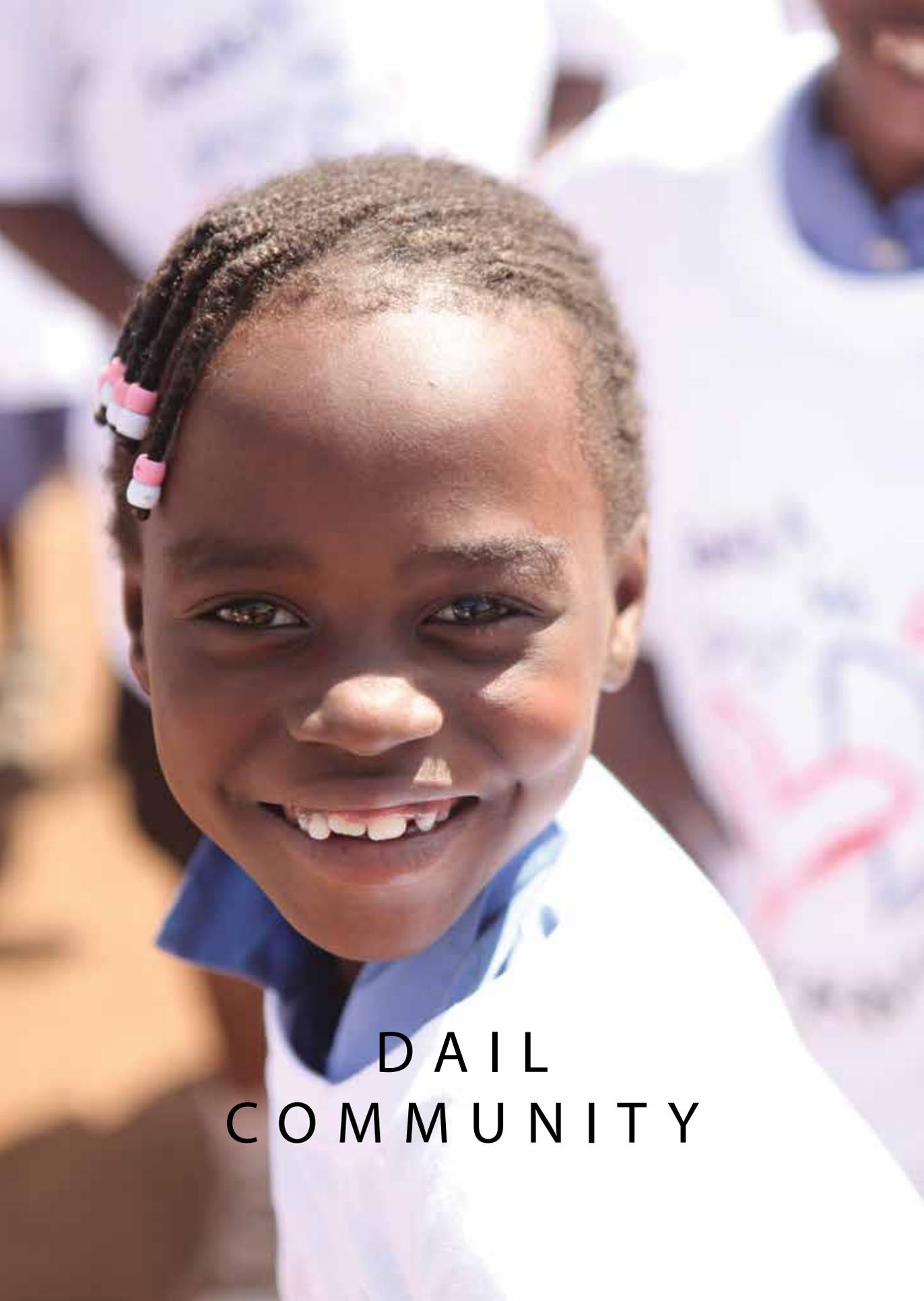
Sincerely,

Dail Community



- 1. 한국 청량리 밥퍼나눔운동
본부에서 제공되는 밥
- 2. 탄자니아 밥퍼센터에서
제공되는 밥
- 3. 캄보디아 밥퍼센터에서
제공되는 밥





D A I L
C O M M U N I T Y

영혼을 위로해주는 시

성령께 바치는 성 어거스틴의 기도
St. Augustine's Prayer to the Holy Spirit

시 제공 Byeol Ellie Choi

제게 생명을 불어 넣으소서, 성령이시여,
제 모든 생각들이 신성할 수 있도록.

제 행동을 주관하소서, 성령이시여,
제가 하는 일도 신성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당신께 가까이 하소서,
성령이시여, 제가 신성한 것만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소서, 성령이시여,
제가 모든 신성한 것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를 지키소서, 성령이시여,
제가 언제나 신성할 수 있도록.

아멘.

Breathe in me, O Holy Spirit,
that my thoughts may all be holy.

Act in me, O Holy Spirit,
that my work, too, may be holy.

Draw my heart, O Holy Spirit,
that I love but what is holy.

Strengthen me, O Holy Spirit,
to defend all that is holy.

Guard me, then, O Holy Spirit,
that I always may be holy.

Amen.

아프리카의 눈물이 아프리카의 희망이 되길 소망하며

2013년 1월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의 개원으로 시작된 다일 공동체의 아프리카 사역은 이후 1년이 넘는 기도와 준비로 지난 7월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인 우간다에도 분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 있는 가장 힘들게 사는 빈민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무료급식과 아동결연 사역을 감당하게 될 우간다 다일 공동체는 우간다를 넘어 아프리카를 이끌 인재를 양육하는데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간다 다일공동체의 비전을 보고 지원하기 위한 아프리카 4기 비전팀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다녀왔습니다. 함께 개원 예배를 드림으로 우간다 다일공동체의 시작을 축하하고 우간다 사역의 첫 발걸음을 캄팔라의 대표적 빈민촌중 하나인 카모차 마을과 그 안에 위치한 학교를 방문하여 빵과 티셔츠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였습



니다. 빵과 티셔츠를 받아든 아이들의 얼굴이 어찌나 맑고 밝은지 바라보는 우리 일행들 모두가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함도 잠시, 빵을 나누고 카모차 마을을 둘러보면서 그 열악한 주거 환경과 전무하다시피 한 생활 기반 시설들을 둘러보며 생각보다 심각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보며 우간다 사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복과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그마저도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함께 간 멤버 모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길 하나를 두고 맞은편은 캄팔라의 최고 부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니.. 최고 부유층과 최고 빈민층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며 아이러니 하면서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 한 켠이 먹먹하고 서글프기만 했습니다. 마을에서 나오는 길에 마을 앞까지 따라 나오면서 진심으로 인사해주는 아이들과 가지 말라고 우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찡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이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새 힘과 산 소망이 넘칩니다. 적도 아래 뜨거운 날씨보다 더욱 뜨거운 만남으로 인연의 고리가 더욱 두꺼워지고 이 아이들이 밥퍼 센터에서 밥을 먹고 호프 클래스에서 공부하며 곧 세워질 꿈퍼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아프리카를 상상하기만 해도 저 하얀 구름보다도 저 파란 인도양보다도 더욱 더 아름답고 황홀하기만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처럼 맑고 때 묻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현실을 넘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름답고도 건강한 우간다 다일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박상원 홍보대사가 디자인한 다일공동체 티셔츠를 입고 '최고'를 외치는 아이들 @우간다 다일공동체
- 2 티셔츠를 입혀주며 기뻐하는 박상원 홍보대사(좌)와 최일도 목사(우) @우간다 다일공동체

Hoping the tears of Africa turns into hope of Africa

Dail Community and now we have Uganda community as well with more than one year of prayer and preparation. The Uganda Dail community will do free meal ministry and one-to-one child matching ministry to save people of one of the most poorest village in Kampala, capital city of Uganda. The Uganda community has vision to raise up children who would lead Africa eventually. We had a 4th vision trip from 29 July through 6 August to see the vision of the Uganda community and to support it. We took our first step of the vision trip by celebrating the beginning of the Uganda Dail community with opening worship and by visiting a school located in Kamocha village, the poor village of Kampala, and share bread and T-shirts there. We were so happy to see the children's bright face who were delighted when they received the bread and T-shirts. The happiness last only short time when we faced rather serious realities than we thought it would be when we looked around the Kamocha village and realized how their infrastructure were in seriously bad condition. Children are attending school but most of them could have only a meal a day that we deeply felt how it is needed to support

Uganda ministry. Furthermore, although the children are provided free education they cannot come to school as they could not afford school wears and food. We were deeply in trouble in our heart for the situation.

Across the street, there was a rich village where the richest people in Kampala resides.

It was such an ironic that the most rich village and the most poor village exists together. I was deeply touched when we were greeted by children who followed us and asked us not to go back to Korea. With love of them I was very much encouraged with new power and living hope that I shall prepare and pray more next time. I am so amazed when I imagine of Africa whose dream will come true by Hope Class and by Kum-per where children will have their everyday meal and where children will study. I would like to encourage you to send us many cares and love so our children, who are so pure like the nature, can dream hopeful future beyond the reality. I would also be grateful when you support us with encouragements and cares so Uganda Dail Community will be a beautiful and health community in Africa.





100원의 자존심으로 아프리카에 희망을 선물하다!

밥퍼를 시작한지 5년 후, 지금부터 꼭 21년 전 청량리 쌍골다리 아래에서 한 노숙인이 “무료 급식이란 말에 솔직히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도 돈을 내고 밥을 먹고 싶다.”며 식사비로 100원씩 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아무리 노숙인 신세라지만 무료 급식이라 하니 젊은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밥퍼나눔운동본부 한쪽에는 찌그러진 냄비 하나가 놓였고 그때부터 시작된 밥퍼의 자존심 유지비가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10만개가 모인 것입니다. 그동안 모인 자존심 유지비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종합관을 짓는데 보탬이 되고, 필리핀 다일공동체를 설립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빈민촌의 소년 르은이의 심장병 수술과 뽀안이의 척추측만증 수술비에도 보태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0만원이 모여져 노숙인분들께 자존심

유지비의 사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시작된 이 귀한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프리카 빈민촌의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하여 사용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내친김에 학교를 지어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꿈퍼”입니다. 이 자존심 유지비로 탄자니아 쿤두치 채석장의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자존심 유지비로 생명을 얻으며 봉사 받던 분들이 봉사자로 바뀌는 삶이 된 것이니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라 치부했던 노숙자들이 한푼 두푼 낸 자존심 유지비가 더 못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나눔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With the Self-Esteem in 100 Won

Five years after Babfor started, exactly 21 years ago from now, under the Doubleunderpass of Cheongnyangni a homeless person suggested that everyone pay 100 won for the meal. He said, “Frankly, the phrase ‘free meal’ hurts my self-esteem. We want to pay for our meals too.” The phrase ‘free meal’ hurt his self-esteem as a young man, homeless as he may be. After that, a dented pot was put in one corner of the Seoul DAIL Baffor, and the ‘self-esteem maintaining fee’ gathered to be 10 million won. One hundred thousand 100 won coins had been collected. The self-esteem maintaining fee accumulated over the years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s Memorial Chapel, and to the establishment of Philippine’s DAILcommunity. It also contributed to the heart surgery of the Cambodian boy Loeurn, and the scoliosis surgery of Porn. And another 10 million won was gathered, so we asked the homeless people about the use of the self-esteem maintaining fee. “How do you think this valuable donation started to keep your self-esteem should be used?” At this question, they answered with the opinion that it should be used for the starving children of African slums, and the idea that a school should be built for them. That school became Tanzania’s “Kum-



for”. It is a miracle that the self-esteem maintaining fee was used to build a school for the slum children of Tanzania’s Kunduchi Quarry, but a greater miracle that the people who received help have now become people who give it, through the self-esteem maintaining fee. On seeing that the self-esteem maintaining fee given by homeless people who were considered incompetent and powerless has helped people less fortunate than them, we can think about how our little contributions can make the world beautiful.

1. 자존심유지비를 내는 어르신과 이를 받는 최일도 목사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2. 하루동안 모인 자존심 유지비

10월 04일은 전 국민이 천사(1004)되는 날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세워진 개신교 최초의 전액무료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이 올해로 꼭 12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밥퍼는 **촛불**이다"

-글 이다경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 이다경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식탐이 많아서 먹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이 해주는 요리를 먹기보단 제가 직접 만든 요리를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제가 만든 요리를 남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식품영양학과로 결정하였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한식조리자격증과 양식조리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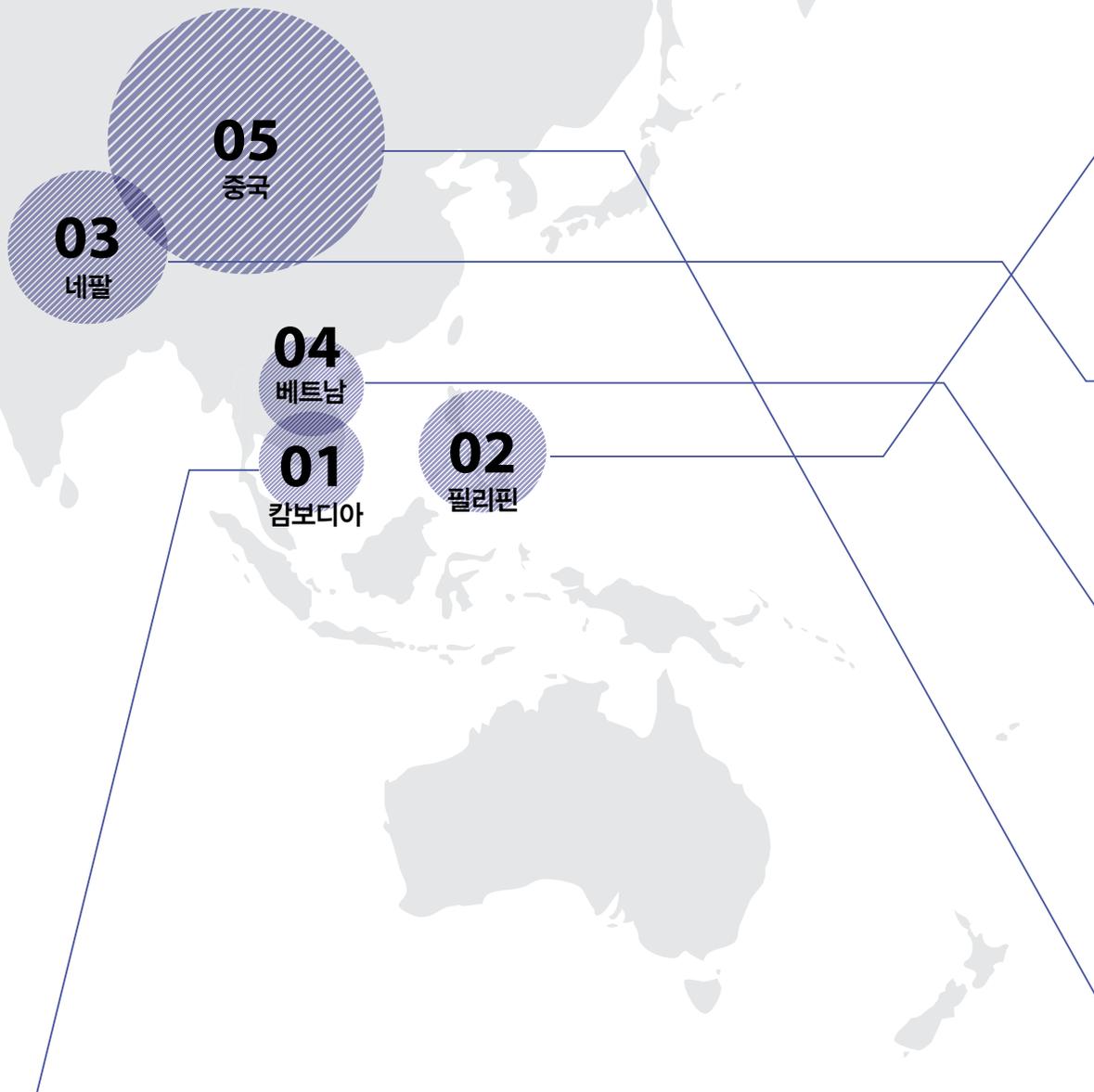
저는 우연히 신문기사를 통해 '밥퍼'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봉사활동이었고, 영양사가 되기 전에 저에게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밥퍼',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왜 이제서야 알게 된걸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봉사활동을 신청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밥퍼나눔운동본부'로 향하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길이라 길을 헤매며 땀별 아래 땀을 흘리며 겨우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약 30명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분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징어 손질을 맡았습니다. 그때 내심 기뻐했습니다. 한식조리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오징어 손질을 많이 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32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날씨에 천막 아래서 오징어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등에는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쌓아온 재능을 '밥퍼나눔운동'에 작은 부분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식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들였던 시간과 끊임없는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혀 힘들지 않았고 행복했습니다. 오징어 손질을 끝나치고 주방에서 배식준비를 하면서 배식을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보았습니다. 대부분 제가 도착할 때부터 땀별에서 기다리시느라 더위에 지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밥을 먹기 위해 오랜 시간 더위를 참아내며 기다려본 적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25살이 된 지금에서야 밥의 소중함을 밥퍼봉사활동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밥퍼'는 '촛불'입니다.

하루에 세끼를 먹는 것이 기적인 홀리스, 독거노인들의 인생에 한끼 식사를 통해 어둠에 희망을 주는 촛불입니다. 제가 영양사가 되기 위해 가는 길을 밝게 밝혀주는 촛불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소소한 능력을 밥퍼에서 발휘 할 수 있었고, 밥퍼나눔운동을 통해 밥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낀 밥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현명한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밥퍼'와의 소중한 인연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분원뉴스



01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아론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서 아동결연 업무를 담당하며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아론(여, 24)'은 12살 때 큰 개에 얼굴을 물렸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치료하지 못해 지금까지 상처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봉사자들께서 아론을 위해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주셨고 캄보디아 다일 가족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곧 프놈펜에 있는 병원에서 상처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아론이 그동안 근검절약하며 모은 돈과 아론을 위한 현지후원금으로 수술을 시작하지만 수술 후 입원과 치료에 \$1,200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론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하여 사랑하는 후원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식 원장

02 필리핀다일공동체

화상소년 제시가 살아났습니다.

지난 6월 7일, 페이스북에 올렸던 <긴급요청, 화상소년 제시를 도와주세요.>의 제시를 기억하시나요? 여러 후원천사님들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석달 동안 치료를 잘 받아 마침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시를 위해 안타까이 기도해 주시고 귀한 후원금과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 후원천사님들께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제시를 치료해준 PGH의료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명현원장

03 네팔다일공동체 소식

네팔의 8월은 우기 철이라 매일 비가 오고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학을 이용해서 오신 의정부 신촌교회, 청주 공군부대 성무교회, 순천 성원교회, 익산 신광교회, 연세대 글로벌 행정학과, 선한건설 등 여러 단기봉사자들로 인해서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특히 9월부터 제자양육을 위해서 먼저 네다일 스텝들의 제자양육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일의 영성으로 더욱 강건하고 충만하게 될 네다일 스텝들의 모습이 기다려집니다. 언제나 네다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홍 원장

04 베트남다일공동체

롯데리아, 추석 월병 150set 후원

롯데리아에서 땃쫄투(추석)를 맞이하여 월병 150set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추석에 송편을 먹는다면 베트남 사람들은 추석에 월병을 먹고 선물하는데 추석선물로 월병을 받아 들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모습 속에 행복이 피어납니다.

THANH CONG, 창립 38주년 기념 밥퍼 봉사

정기적인 후원과 봉사를 해주고 있는 THANH CONG(이랜드 계열)이 창립 38주년을 맞이하여 밥퍼 센터에서 쌀과 라면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는 THANH CONG 직원들은 물론이고 THANH CONG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도 같이 참여하여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종현 원장

05 중국다일공동체

방학을 맞아 중국 다일공동체 온 가족이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백두산 등반은 삼성 꿈 장학사업 문화, 역사 탐방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훈춘에서 백두산까지 왕복 12시간이 걸렸지만 아이들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지 종알종알거리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백두산에 오르고 백두산 천지를 함께 보며 답답했던 그간의 아이들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커지는 듯 합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도록 후원해주신 천안 신천C, 익산 샘물C, 양자선교회, 삼성꿈장학재단에 감사드립니다.

평산이 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다일어린이집에 와서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 다일천사병원에서 구순구개열수술을 받았던 평산이 이번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훈춘시 제2 조선족 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희준 원장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01



동대문세무서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가까운 이웃, 동대문세무서 임직원들입니다. 국민의 납세의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물론, 나눔과 섬김으로 똘똘 뭉친 봉사정신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2



다우케미칼

쉬고 싶은 날, 봉사를 위해 기꺼이 밥퍼로 찾아와 주신 다우케미칼 직원들입니다. 땀 흘리며 나누는 봉사과 함께 귀한 지원까지 해주시니, 정말로 밥퍼는 언제나 기적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있어 밥퍼는 늘 따뜻한 감동이 흐릅니다.

03



맥쿼리증권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봉사 오는 맥쿼리증권 임직원 여러분입니다. 밥퍼를 찾아와 주실 때마다 나눔의 지원까지 함께 해주시니, 밥퍼는 늘 감사하고 가슴 뭉클해집니다. 미소로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들이 있어 어르신들의 어깨가 한층 더 부드러워집니다

04



코이카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지원군이 오셨습니다. 코이카 단원 여러분입니다. 특별히 코이카 단원 연수중에 밥퍼 봉사를 꼭! 해야 한다며 오셨습니다. 봉사가 무엇인지, 나눔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봉사함으로써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코이카 단원들에게 오히려 밥퍼가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05



한국중부발전

매년 정기적으로 봉사오시는 한국중부발전 임직원입니다. 특별히 든든한 나눔의 지원으로 밥퍼의 공간이 가득해졌습니다. 우리 나라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물론 복지까지 책임지려하니, 밥퍼에서 흘리는 땀의 의미가 새롭기만 합니다.

06



랄프로렌

밥퍼에 처음 오신 단체입니다. 유명한 폴로 의류업체인 랄프로렌입니다. 밥퍼에 봉사하기 위해 각 지점에서, 봉사장에서 모이셨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박수로 마무리하는 랄프로렌 직원들을 보며 존경과 봉사정신을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07



동부영재교육원

동대문구에 소재한 중학교의 수재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동부영재교육원 학생들이 일주일간 정기봉사를 오셨습니다. 아직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역동적인 활동으로 내내 밥퍼가 힘있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중학생답지 않은 어른스러움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08



연세의료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 연세의료원에서 밥퍼에 봉사를 오셨습니다. 글로벌한 밥퍼답게 특별히 베트남과 몽골 지역의 의과학생들과 의료원 학생들이 모여서 왔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봉사와 나눔이란 단어로 똘똘 뭉친 모습에, 마지막 자그마한 선물과 감사를 외치는 감동에 밥퍼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THANKS TO

신규후원회원
6.20~8.20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도시환경, (주)신원에스앤티, (주)에스코, (주)티이티이, (주)현진하이텍, 김애경, 산호세뉴비전교회, 최영자(멋쟁이할머니), 도너도넛, Arai Rie, CJ제당동우회, GODJESUS, KT16강북네트워크운용, VOLVO생산기획팀(김대원), 강미선, 강혜경, 거성교회유아부, 고영배, 고은영, 고재룡, 고정수, 고희승, 공현숙, 구경숙, 권대익, 천세진, 권안나, 권영훈(박승철혜어), 권정민, 권정희, 근화제약(주), 기미진, 기현수, 김강희, 김경성, 김광휘, 김광희, 김도형, 김동원(김태국), 김동학, 김민경, 김민선, 김민우, 김민우, 김상욱, 김상현, 김석원, 김선자, 김수아, 김애경, 김연근, 김연수, 김영례, 김영미, 김영연, 김영화, 김유영, 김은아, 김은영, 김은중, 김은혜, 김은희, 김익열, 김자이, 김재현, 김정관, 김주안, 김지형,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 김진금, 김진수, 김진식, 김찬호, 김태형, 김풍태, 김혁, 김현미, 김현이, 김혜은, 김홍미, 김효정, 김희순, 나혜영, 남기윤, 남기찬, 네팔, 넥스트리인터넷(주), 노경순, 노순옥, 노시욱, 노영숙, 노원(윤명자), 노희휘, 뉴월드관광(주), 대구서광교회햇살청년회,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덕산중학교2-5, 동대문중학교, 동회경, 두기고, 롯데쇼핑(주)청량리점, 류경희, 류재하, 명선희, 모문영, 무명, 묵안리DTS훈련원, 문병용, 박건우, 박명례, 박미라, 박상미, 박성제, 박소희, 박순옥, 박순옥, 박승일, 박승철혜어유성점, 박언경, 박은선, 박하야, 최세룻, 박해정, 박혜정, 배선희, 배은영, 배철규, 백은영, 범순균, 베스텍(주)하강수, 변혜진, 보현세현우현, 봉사, 사나모저금통, 서동환, 서울다일교회 청년부, 서울유우정준모(행도), 서종규, 석대식, 성암여중3-4, 성지연, 성철우, 소망교회사회부, 손복례, 손요한, 손향순, 송병철, 송영미, 송요안, 송태돈, 송호준, 시애틀명성교회, 신선화, 신중섭, 신태섭, 안서현, 안일석, 안태정, 양상길, 양성, 양영열, 양용례, 에스티에스개발 주식회사, 여운정, 염보람, 오세희, 왕복순, 왕종복, 왕소정, 우점동, 우혜중, 우효례, 유명희, 유제윤, 유춘자, 윤명숙, 윤상돈, 윤인한, 윤점순, 윤현진, 윤현진, 윤혜정, 음선우, 이덕애, 이도재, 이명기, 이명문, 이미숙, 이병철, 이부규, 이상목이상은, 이상철, 이선민, 이선희, 이성원, 이성인, 이성희, 이용남, 이옥현, 이윤희, 이은주, 이재한, 이종해, 이지연, 이지영, 이찬원, 이춘화, 이해천, 이형민, 이혜숙, 이호영, 이호형, 이호순, 이후복, 이영수, 일산주엽박승철혜어, 임신철, 임이랑, 임태섭, 임호영, 임효정, 장성훈, 장재익, 전남훈, 정경자, 정다희, 정명혜, 정우현, 정유미, 정현진, 제시후원, 제시힘내라, 제시엠티, 조광현, 조덕, 조명순, 조명현, 조민숙, 조승현, 조윤희, 조인순, 주님감사고이종순기념, 주님감사교회오연기념, 주님감사교회최오연기념, 주란, 주바라기, 주시연, 주민서(손숙진), 주식회사 휴빌스복지매니지먼트, 지대윤, 천정자, 최경일, 최민규, 최봉철, 최선예, 최성희, 최숙자, 최순영, 최승호, 최우담, 최우진, 최정숙, 최하연, 최홍신금호이정혜, 칼제이콥스, 킹덤오브갓, 태운희, 하형주, 한겨레이길우극장, 한경호, 한복희, 한성과학고1-5저금통, 한정우, 한정현, 한지민, 한지혜, 한창희, 해맑은어린이집, 허진영, 허혁, 홍보라, 흥정화, 황세일, 황유경, 황혜진, 희망, 힘내제시

밥퍼나눔본부
후원물품
6.21~8.20

갑기회관 비빔밥 1500인분, 김용식 쌀 80kg, 교육연수원 후라이팬, 남민우 쌀 200kg, 농협물류 쌀 200kg, 드림재단 빵 4800개, 무명 쌀 40kg, 무명 참외 4box,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쌀 200kg, 서울유우 우유 4032개+345box, 서울메트로 쌀 500kg, 소망교회 사회부 수박22통, 운중중학교 식기 그릇, 이찬원 김치+쌀, STS개발 탁구대set, 예스코 쌀 200kg, 장류협 회조할 된장, 고추장등, 친환경 식품 콩나물 20봉지, 코이카 TV 1대, 태진인터네셔널 쌀 80kg, 하이트진로 생수 2000개, 한국중부발전 온누리상품권 300만원, 한일이화 쌀 2000kg

다일작은천국
후원회원 및 후원물품
6.21~8.20

후원금
대전동안교회, 이정애
후원물품
박문정님 키친타월 외 휴지 등, 박승철혜어 쌀10kg x 1포, 오미희님 수박과 참외, 정현어페럴 (대표 김희숙) 흰색티셔츠 30개, 코이카봉사단 칫솔 등 생활용품

다일천사병원 후원물품
및 협력병원
6.21~8.20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알렌맥스플러스디정 외 2종), 영일제약(김영주님)배부틴 외 17종
협력병원
초이스이비인후과,연세속편한내과,칸비노기과,카톨릭정형외과,서울의료원,김호천방사선과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후원회원
4.26~8.20

Jane Taylor, Martha Pavao, THC, The Stony Brook School Korean Friends, YM, 강무연, 경기노회, 경은주, 김현식, 류건, 김유겸, 경인감리교회, 광양중앙교회, 구분화, 군산시청글로벌 체험자, 권영배, 권수현, 정혜정(기쁜소식교회), 기쁜소식교회의료선교회, 기쁜소식교회청년부, 기쁨이 있는 교회, 같은 배(기쁜소식교회), 김금순, 김세혁, 김미경, 김세아(전주우림중), 김슬아(GPA), 김영권, 김예린, 김예원, 김예슬, 김포예은유치원(이영호), 김현식, 김유겸, 류건, 오상훈, 김훈민, 김정음, 꿈축스텝, 남상윤, 단국대, 당진감리교회, 대박식당, 더불어꿈, 동송교회비전트리팀, 류호열, 정명해, 무명, 무명(대한항공승무원), 밀양시민교회글로벌리아양상블, 박서연, 박세연, 박선화, 박성규, 박인기, 박호신, 배순옥, 지승은, 배영실, 베트남다일공동체, 비엔나김종민후원회원, 사랑의교회(이찬식목사), 사직제일교회, 새롬교회 중고등부, 청년부,섬문화, 성결대학교, 손제한, 김종희, 신명호, 안양주일감리교회, 알짜(김영희), 여천중앙교회 최기현 목사 외 성도일동, 예림교회, 유(박)명숙, 유형창교수팀, 윤기철목사님팀(말씀골교회), 윤선희, 이두중, 이수성결교회, 이승욱, 이영주, 이준형, 이지현, 인천동수감리교회, 임마누엘교회(황채순목사), 임준창, 이병민, 전상훈, 전주대ESF, 전주중앙교회청년부살림비전트리팀, 정소연, 정소현, 정연우, 강순애, 신혜림, 정유중(기쁜소식교회), 제8기단국대학교해외봉사단, 최윤경(THC), 최일도, 충북청원신협, 충주C마트, 충주노인요양원, 카도, 파평초37회동창일동, 평북노회동부시찰 윤호영목사외, 프놈펜제일교회, 하운서, 하준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울산사회산업연수팀, 한연, 흥대연

중국다일공동체
후원회원
6.21~8.20

김성재, 동송교회 청년부, 리나, 무명1미국 산호세 뉴비전 교회, 박교진(미국), 양자선교회, 이숙의(시카고), 전지향 친척, 훈춘시 제1 유치원 소3반, 훈춘시 제4소학교 2-1

탄자니아다일공동체
후원회원
6.21~8.20

Mrs. Iwala, 김영선, 손광주, 아부다비 한인교회, 아프리카 다일비전트리 4기

베트남다일공동체
후원회원
6.21~8.20

THANH CONG, KREVES, LA충현선교교회, LG VINA, LOSCO, MAX VINA, NAHAL, POS-SEA, VE-GAS, 기업은행, 김찬, 다비CJ, 터카, 대우인터내셔널, 대장금, 롯데리아, 박재민, 박정호, 보민건설,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삼양제일교회, 아리랑화학, 코베아 골프 동호회, 아산상선, 포스코 SOUTH ASIA, 포스코 VHPC, 포스코베트남, 한동이앤씨, 호치민중앙교회

필리핀다일공동체
후원회원
6.21~8.20

Bobit, Omana, 무명, 박종민

네팔다일공동체
후원회원
6.21~8.20

KOICA ALUMNI ASSOCIATION OF NEPAL, GLOVAL EXPEDITIONS, EXODUS HIMALAYA ADV, 공군성무교회, 구미시민교회, 김성일, 무나, 무명, 부넝팀세나, 송원(시카고)신구대학교, 연세대 행정글로벌학교팀, 의정부신촌교회, 이길순, 이데아하우스, 이리신광교회, 이보화, 존, ㈜선한결실, 최윤정, 하늘누리교회, 한가람교회, 한국시니어선교학교 비전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해외 아동과 결연을 하시면 결연 아동의 소개서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밥퍼 365(월 36,500원)	365일 밥퍼와 함께하는 마음을 담은 국내외 무료 급식을 위한 후원입니다.	
전세계 밥퍼 1일 배식비(700만원)	노숙인 및 무의탁 어르신들께 하루 진지를 대접하는 후원입니다.	
다일천사후원	다일 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1구좌 100만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일평생천사후원	다일 공동체의 중장기 비전을 위한 후원입니다. 1구좌 1,004만원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분원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씨엠립 다일공동체 캄보디아프놈펜 다일공동체 베트남 다일공동체 필리핀 다일공동체 중국 다일공동체 네팔 다일공동체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우간다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65 국민은행 467701-01-142578 국민은행 467701-01-142594 국민은행 467701-01-142581 기업은행 017-033086-01-021 국민은행 467701-01-157448 국민은행 467701-01-233964 국민은행 467701-01-231436
다일복지재단 후원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 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 및 다양한 방법으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070-8220-3940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433, Hunchun Xijie, Hunchun Shi, Jilin Sheng, China Dail Children's House

Tel. 070-7792-5451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Post Box #25655, Kathmandu, NEPAL

Tel. 070-8201-5833

포카라 지부

Sahara Bal Primary School, Pokhara 9 Shivatole, NEPAL

Tel. +977-98511-62280

우간다 다일공동체

Tel. 070-8271-1955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1 Greenwoods, Paliparan #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Plot No.2 Block D. Low Density Msasani Village, Dar es Salaam, TANZANIA

Tel. 070-4099-8686

베트남 다일공동체

D19-07, New Saigon Building, Nguyen Huu, Tho St. Nha Be, Hcmc, VIETNAM

Tel. 070-8220-6160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후원내역

- | | |
|---|---|
| <input type="checkbox"/> 만원의 행복(월 1만원) ____구좌 | <input type="checkbox"/>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____아동 |
| <input type="checkbox"/> 밥퍼 365(월 36,500원) ____구좌 | <input type="checkbox"/> 전세계 밥퍼 1일 배식비(700만원) |
| <input type="checkbox"/> 다일천사후원(1구좌 100만원) ____구좌 | <input type="checkbox"/> 유산 10% 기부회원 |
| <input type="checkbox"/> 다일평생천사후원(1구좌 1,004만원) ____구좌 | <input type="checkbox"/> 다일아너스클럽회원(1구좌 1억원) |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 여)
 연락처 _____
 이메일 _____ SMS수신동의
 주소 _____
 우편물 발송 우편물 미발송

CMS 자동이체 동의서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 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기부금 영수증

주민등록번호 _____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동의됩니다.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후원금은 소득세법 34조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 등록 및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붙칠하셔서 접어주세요

붙칠하셔서 접어주세요

붙칠하셔서 접어주세요

나눔의 행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만원의 행복 후원

www.dail.org
02.2212.8004



보내시는 분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발송유효기간
2014.02.14 ~ 2016.02.13

동대문우체국승인
제40242호

DAIL 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복지재단 6층
후원안내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다일영성수련

DAIL SPIRITUALITY TRAINING

1 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 159기 9월 22일(월) ~ 26일(금)
- 160기 11월 24일(월) ~ 28일(금)
- 161기 12월 15일(월) ~ 19일(금)
- 미주17기 11월 3일(월) ~ 6일(목)



대표 | 최일도 목사
서울다일교회 담임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희여행과 우주여행. 신희여행이 얼마나 멋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적 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 찾기라는 영성 수련은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황홀한 여행이었다.

- 한비아 (전 월드비전 구호팀장)



4박 5일의 시간이 제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어요. 창조의 질서가 보여서 참 신기하고 놀라웠죠. 사실을 보는 힘, 진실을 아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온몸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 진실이 보이니까 제 자신과 예수님이 보였던 것 같아요.

- 류승완 (영화감독)

설곡산 다일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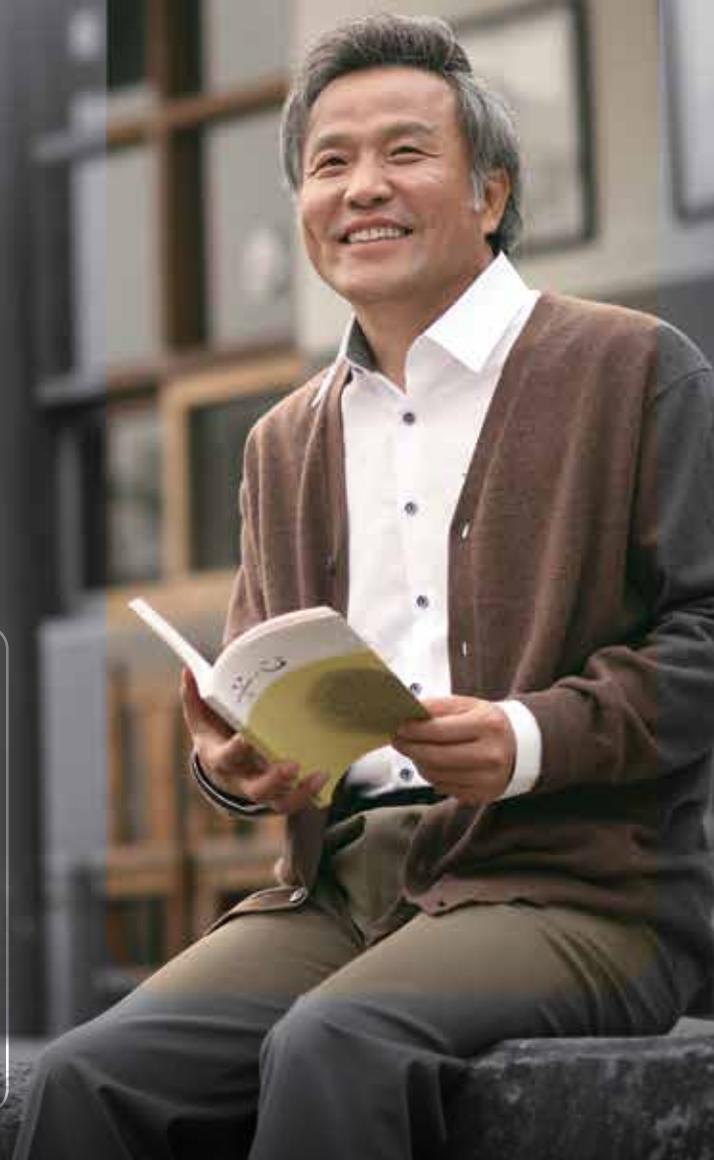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여, 수련비 입금(농협 355-0022-4654-93 | 예금주: 다일 공동체)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 031-585-2004
M. 010-7756-8004
H. www.dail.org

밥퍼목사 최일도의 신간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편지를 쓰고
2,555통의 고백을
뜻과 정성 다해 부쳐
독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감동 휴먼 스토리



11월부터 전국 유명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